

코로나 여파에 속수무책... 위기의 광주·전남 경제

자동차·가전·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중추 산업들 수출 급락
주요 산업단지 공장가동을 뚝뚝... 소비위축에 관광도 부진
LG화학, 여수 PA 생산 공장 철수 검토 소식에 동부권 '슬럼프'

코로나19가 몰고온 '후폭풍'이 광주·전남 산업계를 강타하면서 지역 경제에 '적 신호'가 켜졌다.

광주의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물론,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 등 지역 중추 산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출이 급락,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가동률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앞선데 덮친 격으로 LG화학이 여수 PA 생산 공장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가 슬럼프에 있다.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4월 광주 첨단산업단지의 수출실적은 2억 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 4300만 달러)보다 39.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주요 국가산단 역시 마찬가지다. 여수산단 수출실적은 같은 기간 11억 2100만 달러로 전년(18억 9500만 달러)보다 40.8%나 감소했고, 광양산단은 지난해(5억 2200만 달러)보다 35.2% 줄어든 3억 38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수출과 생산이 줄면서 당달이 산업단지 내 공장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

수출이 주력인 기아차와 삼성전자 가전 부문 협력사들이 있는 광주 첨단산단 가동률은 69.9%로, 전년보다 8.3% 포인트 하락했다.

실제 운송장비는 82.8%에서 64.4%로 곤두박질쳤고, 전기전자는 78.0%에서 73.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산단은 무려 10.4% 포인트가 하락한 83.9%를 기록했다.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이 95.2%에서 84.6%로 하락했고, 목재종이 100%→79.1%, 철강 96.6%→81.5%, 비금속 74.2%→64.3% 등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광양 산단도 전체 가동률이 79.1%로 6.7% 포인트 추락했다. 같은 기간 철강이 89.1%→82.0%로 떨어졌으며, 석유화학 86.9%→80.9%, 비금속 80.6%→75.3% 등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하필 광주·전남 주력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데다, 이번 충격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와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보다 각각 39.4%, 26.1% 감소했다.

전 세계적인 자동차업계의 위기와 해외 수요 부진에 광주지역 자동차 수출은 50.9%, 타이어는 51.8% 등 급감하면서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다.

해외 소비자들의 이동제한으로 소비위축이 이어지면서 백색가전 수요가 줄어 냉장고 수출은 28.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이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42.6% 감소했고, 자동차 공장의 쇄수에 철강 수요가 줄면서 철강수출도 53.9%가 줄었다.

특히 LG화학이 여수산단에 있는 PA(무수프탈산) 생산라인을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지역 경제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생산라인 철수에 따른 인력 분산 배치를 비롯해 관련 지역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다. 광주와 전남 동부권 주력 산업의 위기 외에도 전남서남권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이 발표한 '전남 서남권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점검' 자료를 보면 조선업과 관광업 등 지역 주력업종의 역외 의존도가 높은 전남서남권의 지역경제가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생산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주물량 감소 등 하방 위험이 높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조선업은 기존 수주 잔량이 소진된 이후 신규수주 전망이 어두워 지역 제조업계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관광 관련 음식·숙박업과 운수업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난과 소비위축으로 농림어업 분야도 위기에 놓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이 늘어 증가한 대출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당분간 해외보다 국내 여행이 유리할 수 있어 관광수요 회복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아산 중턱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아래)가 철거돼있다. 위 사진은 전날 같은 곳에서 관측된 대남 확성기 모습. /연합뉴스

북한, 군사행동 보류... 대남확성기 철거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일부를 사흘 만에 도로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개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거 작업 동향은 이날 오전부터 포

관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보도를 통해 "(23일 열린)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했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좀 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비대면으로 연다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온라인 투표로 치르는 '비대면 전당대회'로 열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특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전당대회와 같은 비율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이 같이 의결한 전당대회회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현행 당헌당규대로 하는 내용 위주의(전준위) 의결 건이 몇몇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 최고위원은 "그런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최고위에서) 이와 관련 의견 제시된 건 없고 보고만 받았다. (당 대표 최고위원 임기 분리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하는 내용도 확정됐다. 다만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문제는 전준위 단위에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비대면 형식으로 치르는 만큼, 투표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헌당규에 온라인 투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작업은 다음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화물차 기사들 외침 삼성이 응답했다 ▶16면

광주FC, 포항전 무승 고리 끊는다 ▶18면



리더스 아카데미 - 강신주 박사 ▶20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